

문제 1

1. “제시문 (가)는 낭비로 볼 수 있는 도락에 대해 제시한다.” 왜 도락이 낭비인가요? 이에 대한 서술이 없습니다. 근거 부족입니다.
2. 비교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좋습니다. 근거도 서술이 충분하게 이루어 지구요. 좋은 답안입니다.
3. “제시문 (다)에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근 단축이 일어나지 않는 점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은 본래 기억을 추구하는데” 제시문 (다)가 원근단축을 하지 않는 점은 본래 기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제시문에 어디 있죠? 이 때 본래 기억이 어떤 기억인지도 의미가 다양하구요. 내용상 어색합니다.
4.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는 제시문 (다)의 원근 단축은 더 큰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제시문 (다)에서 인간은 선택적 기억을 위해 원근 단축이라는 노력을 한다. 하지만, 종종 원근 단축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인간의 노력은 무의미해지게 된다. 즉, 원근 단축이라는 노력을 하지만 이것이 효과가 없을 시에는 원근 단축이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판받을 수 있다.” 여기서도 문제입니다. 원근 단축 자체는 낭비를 없애는 과정이므로 (나)의 입장에서선 타당합니다. 원근 단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지만, 낭비를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원근 단축으로 인한 변칙의 발현이 더 큰 낭비라는 것도 논리적 비약입니다.
5. 전체적으로 제시문에서 근거하지 않고, 비약된 문장들이 존재합니다. 이들 때문에 근거의 오류가 생기고 답안 전체로 문제가 확장됩니다.

문제 2.

1. “ 신입사원 채용에서 제일 먼저 하게되는 것은 서류심사인데, 서류심사는 특성상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제시문 (나)의 사례처럼 사람들은 도움을 통해 유연하게 그 능력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서류심사는 도움이 주어지지 않아 그 가능성까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류심사로써 제대로 선별할 수 없기 때문에 느슨한 서류심사를 진행하여 면접심사에서 채용여부가 결정되어야한다. ” 잘못된 대응입니다. 서류 심사는 오히려, 면접 심사에 비해 도움이 가능하죠. 따라서 (라)에 따르면 시간기준과 대응됩니다.
2. 면접심사에 대한 대응은, 면접심사가 도움이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용하고, 면접심사의 난이도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라)의 난이도, 즉 희미도 기준과 대응시키셨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응이 부족합니다.
3. 전체적으로 (라)를 통해서 대응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까지 잡아낸 사고의 과정은 너무 완벽합니다. 부족한건, 사고의 과정보다 서술에서의 논리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